



가 가 제 제 양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확대와 양계산업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부터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폴란드 등 10개국의 회원국이 늘면서 총 25개국으로 세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EU 25개국들의 인구는 7,500만명이 늘어나면서 총 4억5천2백만명이 되었다. 양계산업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닭고기 생산도 더 늘어나면서 무역도 활발한 것이며, 계란생산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의 케이지 사육 금지가 확산되면서 2009년 이후부터는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난 2002년 대비 2003년의 닭고기 생산량을 보면 신규 유럽 10개국은 3%가량 증가하였으나, 네덜란드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체물량은 806만톤으로 4%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의 경우에도 전체 회원국들의 계란 생산량이 639만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과 닭고기 생산량이 각각 26.7, 3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PI)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 허용

일본은 그동안 HPAI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미국산 가금육과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지난 6월 9일부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HPAI가 발생했던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매릴랜드주, 텍사스주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WATT)

파키스탄

양계업 성장, 시설은 아직 열악

파키스탄의 양계산업이 최근들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상당수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인 농장의 관리, 위생, 집단 방역 의식 등은 뚜렷한 규정과 표준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관계

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발생시 인근농장에 피해를 줄 소지가 높아 자칫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WATT)

베트남

양계장 재배치, 양계업 재건 추진

금년 가금인플루엔자로 3,830만수의 닭을 살 처분한 베트남 정부가 도시지역에서 시골로 양계장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베트남 농업부는 수도인 호치민시는 물론 대도시 인근에 걸쳐있는 양계장들을 외부로 배치하면서 앞으로 2년 후에 165~180백만수의 닭을 늘릴 것이며, 오리, 거위 등 기타 가축도 60~65백만수를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는 1년에 닭고기 36만톤, 계란 47억개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0년까지는 그보다 30%이상 산업가치를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WP)

중국

텐진에 최대 난가공공장 준공 발표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한 텐진에 중국에서 가장 큰 난가공공장이 홍콩의 한 사료회사와 일본의 테이조카가쿠(화학, 식품, 제약사)사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테이조사가 전체 시설비의 절반(약 30억)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05년까지 1차 공장을 완공하고 2008년까지는 1일 최대 35,000톤(약 200만개)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매출액은 2005년까지 57억, 2008년까지는 2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P)

태국

CP사 동유럽과 아프리카 공략 나서

태국 최대의 식품회사인 CP사는 HPAI에 따른 파장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태국 양계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투자의 손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대상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로 이들 나라는 유럽연합(EU)에 새우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등 유럽연합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태국은 유럽연합에 15~20%의 관세를 물고 새우를 수출하고 있다. CP의 한 관계자는 HPAI로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도 회사는 건재하며, 올해의 매출액 목표가 지난해 보다 5% 성장한 약 21억불(약 2조5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밝혔다.(AP)

미국

허리슨버그 타이슨 공장 구조조정 단행키로

미국 허리슨 버그의 한 타이슨 닭고기 가공공장이 금년 8월 2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 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이 공장은 550명의 직원이 1주일에 66만수의 닭고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리대상은 관리직부터 노동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닭고기를 염지하고, 부분육으로 절단하는 세밀한 공정을 없애고 일부를 벨크포장 형태로 타 공장에 납품키로하면서 구조조정을 결정했음을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조류독감에 따른 수출감소 등이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WATT)